

예술공동체 마르 MAR 11th
Merry-go-round Artists Relation (since 1998)

로시난테의 편자

길에서 필요한 것은 그뿐이다



경성대 콘서트홀 2009.10.11 4:00, 7:00

열린소극장 10.14 - 10.17 평일 8:00, 주말 6:00

제작 Production 예술공동체 마르mar | 안무 Choreography 강희정 | 대본 Play-wright 구현철
음악 Composer 전현미 | 의상 Costume 권진경 | 행위자 Performer 문라옥 김종현 김초슬 김영찬 김동석 선승일
후원 Support 열린소극장 예술공동체 <http://cafe.naver.com/opentheatre> | 포스터 Design works 인터페이스
공연문의 Ask for Information 018-519-1683(전화예약) | 티켓가격 일반 20,000 청소년 15,000
2009 사랑티켓 참가작 www.sai.or.kr | 2009 부산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로시난테의 편자

길에서 필요한 것은 그 뿐이다

우리의 일상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이의 일상이 궁금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나와는 얼마나 다를까.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궁금하다. 그래서 남 얘기 좋아하고 드라마를 챙겨 본다. 그리고 위로 받는다.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었다. 자신처럼 일탈을 꿈꾸지만 현실이라는 모호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비슷하다는 것도 발견한다. 그리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한다. 어디 여행이라도 가고 싶다는 말은 이제 인사에 가깝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정작 우리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이제는 낡은 비유가 됐지만 황당무계한, 미치광이의, 저돌적인 행동형의 인간을 돈키호테로 표현하곤 했다. 2004년,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가 400년 만에 한국어로 완역이 되고 '세계 작가 100인이 선정한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표지를 달았다. 그러나 돈키호테라는 인물을 지금 다시 읽어야 할 별다른 이유는 아니다. 서점마다 있는 금주의 베스트셀러를 읽을 필요 없는 이유와 같다. 돈키호테에 대한 예술공통체 마르의 관점은, 길 위에서 살았던 유목민의 삶에 대한 새로움이다.

길에서 필요한 것은 그 뿐이다.

길은 사람들에게 자주 최소한을 요구한다.

성자들이 길에서 나온 이유가 거기 있다. - 성기완(시인,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 멤버)

일상의 오후를 산책이라도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은 무얼까. 가벼운 운동화를 신는 일이다. 그리고 발이 편하게 끈을 조이면 된다. 거창할 것 없이 사색과 풍경을 즐기는 길 위의 시간을 느낄 수 있다. 돈키호테가 길을 떠나기 위해 로시난테의 등에 올라탔다면 로시난테에게는 가볍고 단단한 편자가 필요했다. 우리는 한참을 건다가 멈출 때가 올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선가 왔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다. 모호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아닌 내 삶의 방식을 묻게 된다. 길 위에 있지 않을 때 내 욕망은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내대로 살고 싶다는 유목민의 열망은, 왜 남들처럼 살자는 정착민의 것으로 바뀌는가. 길 위의 유목민으로 선다는 것은 용기이고 슬픈 희망이며 나에 대한 호기심이다. 그러나 그것은 앙상히 말라있는 로시난테에 편자를 끼우는 일로 시작된다. 섬세하고 극적인 움직임으로 치환될 것이다.